#### ● 타운뉴스 칼럼

### 남자들의 수다

안창해



예년 같았으면 연말연시에 크고 작은 각종 모임들로 분주하게 보냈을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식구들과 조 용하게 보낼 수 있었다. 가끔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안부 도 물으며 지내는 제자들과 연말에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 다. 함께 골프를 쳤던 친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자신도 검사했는데 음성이지만 잠복하고 있을 수도 있 어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면서 연초에 보자고 했다.

송년모임이 신년모임이 되어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 저녁, 제자들과 만났다. 5시 30분에 만나 7시 50분에 헤 어질 때까지 화제의 중심은 '건강' 이었다. 코로나 바이 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당연한 것인가? 코로나 19에 관한 얘기는 끊임이 없었다. 백신에 대해서 '맞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 접종해야 한다' 둘로 나뉘어 열 띤 논쟁이 벌어졌다. 결론은 각자의 몫으로 두기로 했다. 얘기 도중 한 친구가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고 했다. 벌써 지팡이를? 마음이 영 불편했다. 그 후로도 건강 얘기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때 한 제자가 말했다. "선생님, L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나보 다 불과 대여섯 살 많은 L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니 놀 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제자가 말했다. "H 선생님도 돌아가셨어요." H 선생님은 아주 씩씩한 분이었다. 몸도 단단하고 유머도 풍부했던 분이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노총각으로 오래 살다가 결혼을 한 후로도 어머니를 모 시고 살던 분이었는데.....

새로 신설한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맡아 졸업할 때까지 3년간 계속 담임을 함께했던 선생님들이라 유난히 친근 하고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다. 그분들이 30대 초반이었 고, 내가 이십대 중반이었다. 제자들은 L선생님, H선생 님과 얽힌 추억들을 꺼내 놓기 시작했다.

학교 앞에 살던 L선생님 댁에 여러 선생님들이 몰려가 서 가끔 고스톱을 쳤었다. L선생님은 결혼한 지 여러 해 되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를 입양하겠 다고 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입양했다 는 소식을 들었고, 다른 학교로 전근하면서 연락을 못하 고 지냈는데. 이렇게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서로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들 다섯이 모였는데 정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잠깐 미국 정치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더 군다나 그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인데 한마디도 하 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트럼프 의 열렬한 지지자가 한바탕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그

러면서 '트럼프가 연임한다' 에 \$500을 걸었는데 바이 든이 취임했다며 \$500을 잃게 되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를 극도로 싫어하는 친구가 날 세워 공격을 하기 시작했 다. 두 사람 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한편에 기울어진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말없이 듣고만 있던 한 친구가 정치 얘기는 그만하자고 해서야 끝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볼일이 있다며 급히 떠났고, 남은 사람들까 리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커피타임에서는 주식 이야기 가 주를 이뤘다. 한 친구가 모 자동차 회사에 투자했는 데 20여 달러 하던 주가가 40여 달러로 올랐다가 곤두 박질치면서 16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그럼 지 금이라도 다 팔아야 하지 않은가 물었다. 그러자 제자 는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했다. 아니 떨어지는 주식을 사면 어떡하냐고 물으니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가 '떨어질 때 사기도 하는데 이를 물타기라 고 한다' 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라 고 했다. 그 제자에게 '자네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가?' 물었다. 그는 많이 하지 않고 몇 가지 종목을 사서 갖고 있다고 했다.

주식에 아예 관심도 없고 단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해본 적이 없기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만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 내가 투자한 돈이 튀겨져서 많은 이득을 얻지는 못 할망정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하지 않은가. 100달러를 투 자했다면 적어도 100달러는 그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는 가라는 아주 단순한 계산법으로 인생을 살아왔기에 크 게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한 번 도 일확천금을 꿈꿔본 적은 없다. 기껏 했던 일이 복권을 사는 일이었다. 단숨에 몇 백만 달러를 손에 쥘 수도 있 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재미삼아 복권을 샀던 것이 전부 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도 시들해졌다.

두 사람의 주식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생각에 잠겨 있 었다. 커피가 식어 갈 무렵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 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자는 인사말을 남기고 헤어져 돌 아오는 내내 지팡이 짚고 걷던 제자의 '물타기' 가 성공 하기를 기도했다.

다음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백신을 접종해 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제자가 백신 접종 예약 사 이트를 전화로 알려주면서 꼭 맞으라고 신신당부했다. 접종을 망설이고 있었던 나답지 않게 서둘러 사이트에 들어가 예약을 완료했다.

chahn@townnewsusa.com

#### 티운뉴스

#### 제 1352호 목차



<b>타운뉴스 칼럼</b> 11
<b>커뮤니티 소식</b> 13,15
<b>IT·과학</b> 16,33
<b>법률</b> 19
<b>여행</b> 21
<b>전문인 칼럼</b>
<b>나는야 1.5세 아줌마</b> 23
세상에 이런 일이24
<b>숨은그림 찾기,답/낱말 퀴즈,답</b>
<b>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b> 27
<b>업소탐방</b> 29
<b>부동산/경제</b> 35
<b>깔깔</b>
<b>한인업소 안내지도</b> 40,42,52,54,56
요리41
<b>그림여행</b> 43
<b>연예</b> 45,47
<b>중고차, 안내광고</b>
Domestic/ 주간운세50
<b>여성</b> 53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 영 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1562)622-9393** 

## 타운뉴스 배포지역

- 로스엔젤레스, 세리토스, 아테시아
- · 하시엔다, 로랜하이츠,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광고문의 562.404.0027

· 가디나, 토랜스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

####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36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5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 일반 - 미용치과 전문

Hara Jeon, DDS, MS, Ph.D Jeong Eun Kim, DDS Soyoun Jenny Min, DDS Maria Capiral, DDS

####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 3차원 CT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괴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 · 무출혈 · 무통 잇몸치료

#### **New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949,679,6000 / (San Diego) 760,479,9876

www.timkimdental.com

# **터쓰**틴 김건중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임프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Medicare B plan (PPO) provider Health care(PPO) 취급하여 → 뼈이식과 Implant 할인 혜택 가능



